

활력이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as8769@chollian.net

(月刊) 第142號

THE FISHING PORT NEWS

1999年 10月 25日(月曜日) [1]

## 2002년까지 1·3종어항 29개 추가 지정

### 효율적관리 위해 시설사용료를 관리비용으로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제1·3종어항 29개, 제2종어항은 42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제1·3종어항

은 현재 105개에서 134개, 제2종어항은 306개에서 348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개발 중인 88개 1·3종어항은 2005년까지, 신규지정 46개 항은 2010년까지 기본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며, 348개 2종

어항은 2010년까지 기본시설을 완공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항기능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어항시설 중 기능 복지 관광 휴게시설의 민자유치 촉진과 어항시설 이용료를 관리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어촌/어항개발 정책을 일반개

발 정책(지방정부)과 시범개발 정책(중앙정부)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촌종합개발과 어항개발을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어항개발 완공률을 일정기간내에 1% 높일 경우 얼마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은?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

△경남도내 354개 소규모 어항들이 토사나 쓰레기 등으로 메워져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경남도내 10톤 미만 소형어선들이 어획물이나 생필품 하역 등을 위한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다. △항내 준설 등 외면관리권을 맡은 해양수산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지정어항과 연계한 지역기초어항으로 개발대책이 시급하다.

## 제11차 해외어항어촌조사단 파견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개국

한국어항협회는 10월 19일 제11차 해외어항어촌조사단을 파견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과 시도 시군 관계자, 일선수협 그리고 어항관련 시공 및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에서 9박10일 동안 어항어촌 관련시설을 살펴보고 오는 10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촌 관련시설과 현황을 살펴볼게 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전국어항협회 및 현 어항협회 그리고 시정촌의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인 안내와 상세한 현황 설명을 들었다.

한국어항협회가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

과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해외어항어촌조사단 파견은 올해가 11차로서 주로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동안 참여 인원은 총 334명에 이르고 있다.

## 낙후어촌 75곳 개발 박차 내년부터 2,600억 투입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靜岡縣과 神奈川縣의 西浦어항, 靜浦어항, 內浦어항, 小田原어항, 三崎어항을 방문하여 어항시설 및 어항어촌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항만청 방문에 이어 시드니항과 퀸즈라항을,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항만청 방문과 오클랜드항 그리고 파라다이스벨리 송어양식장을 시찰하게 된다.

이번 조사단은 예년과 같이 방문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현지에서 직접 어항어

촌 관련시설과 현황을 살펴볼게 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전국어항협회 및 현 어항협회 그리고 시정촌의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인 안내와 상세한 현황 설명을 들었다.

한국어항협회가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

정부는 부산기장 등 75개 어촌권역에 대해 내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낙후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부산기장 등 75개 권역에 내년부터 생산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구역별로는 전남지역 57개소를 비롯 경남 31개소, 강원 13개소, 충남 9개소 등 전국 75개 낙후어촌을 대상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일부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 “벤치마킹 될만한 어항어촌 없다” 중앙정부의 시범개발정책 필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서 지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1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일 양국 EEZ내의 어획부진에 따른 대책과 한중 어업협상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와함께 자유민주연합 김현욱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어항어촌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김현욱

의원은 지금까지 어촌종합개발과 어항개발 투자는 각각 약 2,500억원,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 등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는 지금까지 개발된 어촌 어항 중 향후 국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비전적으로 개발된 어촌 어항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별 35억원 정도의 어촌종합개발 투자규모와

분산된 예산집행 하에서는 선진형 어촌종합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항개발의 경우는 완공률이 29.4%에 불과해 높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종합개발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두 의원의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당진) △어촌/어항개발 효과를

한국어항협회는 정부 용역사업의 하나로 현재 여수항과 통영항을 대상으로 수중침적폐기물 정화공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남해안 일대의 수중침적폐기물 기본조사를 한 결과 1차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실시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수중침적폐기물 정화공사를 하면서 협회는 큰 충격을 받고있다. 예산을 뛰어넘는 잡다한 폐기물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물·로프 등 폐어구는 기본이고, 심지어 타이어·자전거 등 온갖 잡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많은 어업인들이 바다를 생업의 터전이라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참담한 심정에 말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침적폐기물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어업인이 버린 것들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수중침적폐기물 정화공사는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 가운데 효시가 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사실 바다를 잘 가꾸고 깨끗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줄 알면서도 선뜻 나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는 바다는 일종의 자정작용을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원상 복구된다는 인식이 많은데다 계량적인 사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자정작용은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오염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결국 죽은 바다를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상당수 기관이 가시적인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해양수산부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두가지다. 한가지는 어업인의 의식변화이고 다른 한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지속적 사업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어업인의 바다 가꾸기에 대한 의식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솔직히 근본적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천혜의 바다를 잘 가꾸어 오지 못한 것과 생업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죽여온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많은 적든지 간에 어업인들에게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식부족으로 바다에 폐기물을 버려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바다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바다가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못하도록 오염원을 차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는 기왕에 해양수산부가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에 나선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서, 아니 현실적으로 이같은 사업은 정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양수산부가 이 일에 팔을 걷고 나섰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어찌면 큰 행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국익사업을 시작한 이상 질질끌끌 생색내기 예산 투자보다는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 전 해안을 대상으로 해야만이 일정한 수준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곧 2천년대 우리나라 수산업의 진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일 말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단체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사업시행에 대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만이 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사업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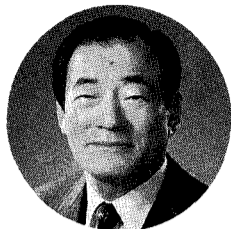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의 해안에 거듭 찬사를 드린다.

수중침적폐기물 정화공사 지속 추진을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 지킴이」 되어야

동

정

### 미얀마대사와 해양수산 현안 협의



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7일 주한 미얀마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양수산 협력방안에 관하여 협의, 이 자리에서 최근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간 EEZ경계확정 진척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의 필요성과 어업기술협력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12일에는 스페인 대사관저에서 열린 스페인 국경일 행사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0월5일 잠실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기 전체회의에 참석, 7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신문화원 주최 해외저명학자 초청세미나에 참석, 11일에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99 서울 NGO세계대회에 참석, 14

일에는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의 초청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51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회의에 참석, 26일에는 수협중앙회 2층회의실에서 열리는 OK21 공청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기 전체회의

에 참석, 9일에는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21일에는 전남 순천시 소재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 제6회 남도음식문화축제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10월11일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광주 전남 선수단을 방문, 선수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 14



#### ■ 인사말을 하고있는 손정식 회장

일본 제51회 전국어항대회에 앞서 13일 오후 중·참의원, 농림수산정무차관 등 5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대회 리셉션에서 손정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에는 국장 임방울문화재단 기자간담회를 주재, ▲정덕용 주식회사상견사 회장은 10월28일 대한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5일 잠실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기 전체회의에 참석, 6일에는 광주 전남 기관장 조찬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4일 한국능률협회 강연회에 참석, 7일에는 일본경제사절단 환영리셉션에 참석, 20일에는 건설단체

총연합회 건설대상 시상식에 참석, 22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간담회에 참석, 이어 서울대 법대 운영위원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4일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 인 사

▲이광수씨(전 한국선박안전기술원 기술본부장)는 최근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로 취임했다.

#### 주소 변경

▲이동배씨(전 수산청장)는 최근 자택주소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리 501번지 동성1차아파트 102동401호로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31) 265-3535, Fax : (0331) 265-

3210, 이동전화:011-711-3535, E-mail:dongbai@mail.com.

#### 외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영진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규룡)
- 개인 ▲김익수씨(국립수산진흥원 서무과장)
- ▲엄세용씨(주식회사 문원사)

#### 부 음

- ▲박종식씨(수협중앙회장)는 10월8일 부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선영.
- ▲송예용씨(전 해양수산부 비상계획담당관)는 10월13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선영.



#### ■ 용역사업 자문위원회의 개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0월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사업과 관련, 연구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 2000년도 일본 어항관련예산 2,212억엔 요구

### 풍요로운 바다와 숲을 정비

일본 수산청은 2000년도 어항관련 사업예산으로 2,211억 7,600만엔(전년비 2.2% 증액)을 요구했다.

세부내용은 어항어촌 정비사업에 통상예산 1,880억 1,500만엔과 특별범위 165억 2,800만엔 등 2,045억 4,300만엔, 어항해안사업에 통상예산 150억 6,700만엔과 특별범위 14억 700만엔 등 164억 7,400만엔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1억 5,900만엔이다.

이중 어항정비(수축·개수·국부개량)사업은 특별범위

127억 9,900만엔을 포함하여 1,648억 600만엔, 어항어촌환경정비(공해·환경·잡락)사업은 특별범위 33억 7,700만엔을 포함 215억 9,000만엔, 어항어촌종합정비(총합·이용조정)사업은 특별범위 3억 5,200만엔을 포함 65억 4,200만엔,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은 34억 7,800만엔 그리고 기타(조사·작업선·보조유차액)사업에 81억 2,700만엔 등이다.

내년도 일본의 어항어촌 정비사업은 연대사업의 강화

추진으로서 △풍요로운 자연의 바다와 숲의 정비대책 △수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수산기반 긴급 정비대책 △수산자원의 정책 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보전·창조기반강화 대책 △어촌 공간 정비사업 등 양호한 해안 환경의 창조 △해안환경 보전대책의 추진 등이다.

그리고 어업지역의 진흥과 수산기반정비로서는 수산물 공급체제의 정비,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이 되는 어장의 보전·창조 등이다.

2000년도 일본 어항관련사업예산 요구 총괄표 (금액단위 : 백만엔)

구 분	1999년도 당초 예산	2000년도						전년도 대비 (%)	
		요구액	특별범위			특별범위계	합계		
생활중점화범위	경제신생특별범위		신생범위계	합계					
합 계	216,363	203,241	11,349	1,802	4,784	6,586	17,935	221,176	102.2
어항어촌정비	199,928	188,015	10,291	1,802	4,435	6,237	16,528	204,543	102.3
어항정비	161,743	152,007	7,319	1,802	3,678	5,480	12,799	164,806	101.9
어항어촌환경정비	19,206	18,213	2,620	-	757	757	3,377	21,590	112.4
어항어촌종합정비	6,574	6,190	352	-	-	-	352	6,542	99.5
어항관련도로정비	4,285	3,478	-	-	-	-	-	3,478	81.2
기타(조사·작업선 등)	8,120	8,127	-	-	-	-	-	8,127	100.1
어항해안	16,022	15,067	1,058	-	349	349	1,407	16,474	102.8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10,385	9,822	695	-	271	271	966	10,788	103.9
해안환경정비사업	4,422	3,988	363	-	78	78	441	4,429	100.2
공유지조성호안등정비사업	148	191	-	-	-	-	-	191	129.1
기타(조사 등)	1,067	1,067	-	-	-	-	-	1,067	100.0
재해복구	413	159	-	-	-	-	-	159	38.5



#### ■ 수중침적폐기물 정화공사

한국어항협회는 정부 용역사업으로 경남 통영항,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침적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국동항에서는 여수MBC '생방송화제 집중' 취재팀이 정화공사 현장을 취재, 지난 20일 여수 목포 광주 전주권에서 방송되었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통영항의 침적폐기물 수거 장면.

바다환경보호  
캠 페 인

깨끗이 가꾼 바다!  
풍요로운 바다목장!

물레버린 밭줄하나  
바다생명 단속한다

# '어업진흥은 어항이 생명! 밝은 어촌에서 살기좋은 국토!'

## 日, 제51회 전국어항대회 성료

### 孫井植 회장, 초청 참석

제51회 전국어항대회가 10월 14일 일본 동경 NHK홀에서 개최됐다.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의 초청으로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이날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 및 위원, 자유민주당총재, 자유당당수, 사회민주당당수, 농림수산대신, 대장대신, 자치대신, 내각관방장관, 수산청장관, 경제기획청장관, 대일본수산회장,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각현 어항협회장, 전국 시·町·村 어항관계자, 수산관련단체, 어업인 등 총 3,500여명이 참석한 대회장에서 그들이 어항어촌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의견을 집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 등을 참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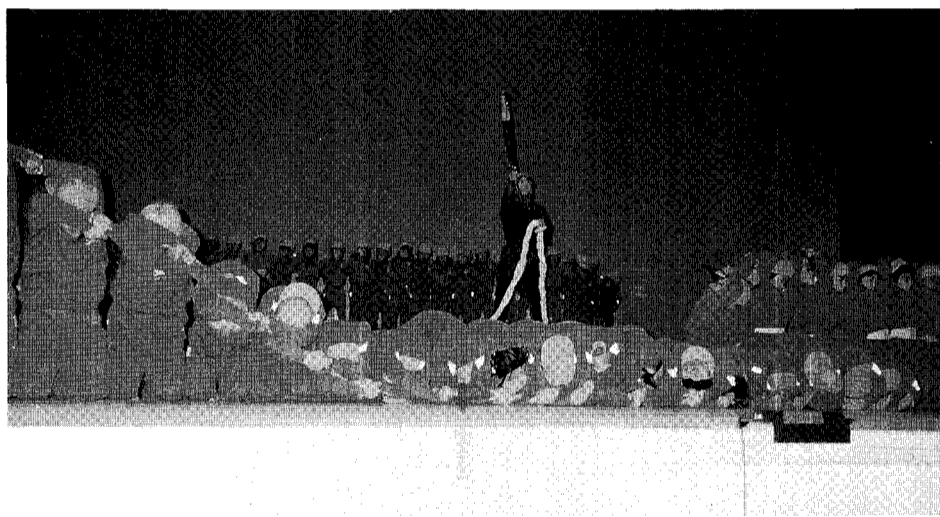
'어업의 진흥 어항이 생명! 밝은 어촌에서 살기좋은 국토!'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서 어항어촌 관계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지역 경제사회 발전과 아름다운 일본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연안역의 활성화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노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수역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기르는 어업을 한층 진흥시키는 동시에 수산업 경영의 체질 강화, 수산물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국민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이 좋은 수산물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바다, 어업의 진흥, 연안역의 생활화'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어항어촌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 받



■ 일본 제51회 전국어항대회에서 중·참의원의장, 농림수산대신, 대장대신, 민주당총재 등 주요인사와 전국의 어항관계자 등 3,500여명이 참석, 어항어촌발전을 위한 총의를 결집하고 있다.(단상 앞줄 오른쪽에 손정식 회장이 자리하고 있고 뒷쪽에는 중·참의원이 배석하고 있다.)



■ 제51회 전국어항대회 제2부에서는 岩手縣山田町立大澤小學校 학생 150명이 「바다여 빛나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세기를 향한 새로운 어항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 선 어항어촌 정비계획의 수립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

의 촉진과 2000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어항어촌 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2000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제6차 해안사업 7개년계획의 촉진과 2000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안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앞서 13일 자민당사에서 열린 대회전야리셉션에서 손정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의 공동이익과 우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제51회 전국어항대회

## 대 회 어 필

우리들 어항어촌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에게 신선하고 맛있고 다양한 수산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촌지역사회가 발전하여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반세기여 걸쳐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 어개류를 주로 하는 일본형 식생활이 매우 건강적이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장수국을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어촌의 생활화나 어업의 진흥을 통하여 녹색이 많은 아름다운 연안역 조성과 해양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을 둘러싼 제반 정세는 여전히 냉엄하고 우리들은 연안역의 활성화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노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수역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기르는 어업을 한층 진흥시키는 동시에 수산업 경영의

체질 강화, 수산물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국민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이 좋은 수산물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바다, 어업의 진흥, 연안역의 생활화'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어항어촌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 어항어촌 관계자는 전국민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나 어항어촌이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도록 호소하는 동시에 어항어촌 등 수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의 정비를 촉진하고, 어업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자본의 충실을 도모하는 일이 불가결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 제51회 전국어항대회

## 결 의 문

어항어촌의 정비수준은 안전대책 하나를 보아도 아직 불충분하고, 또 어촌 생활환경의 정비도 도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계획기간이 2개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21세기를 전망한 수산업의 발전과 연안역의 활성화를 기약하는 일이 매우 곤란한 사정에 있음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를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수산업을 핵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어항어촌 등의 수산기반 정비를 일체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한층 국민의 이해와 지원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향한 새로운 어항어촌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탄력적인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 어항관계자의 총의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실시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 새로운 관점에 선 어항어촌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 제9차 어항정비계획의 촉진과 2000년도 예산의 증액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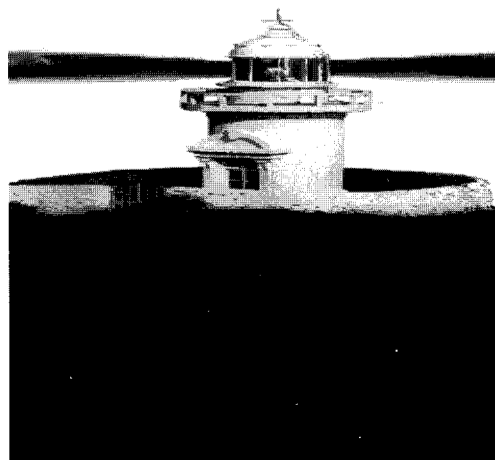
△ 어항어촌 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2000년도 예산의 증액 확보

△ 제6차 해안사업 7개년계획의 촉진과 2000년도 예산의 증액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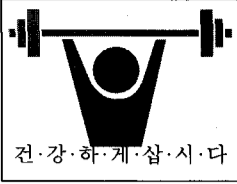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조합  
**수협공제**

#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를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감기에는 냉수샤워 야채죽이 좋다

감기라는 병은 아무래도 경시되어 버릴 숙명에 놓여 있는 듯하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회사를 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슨 광고 같은 말이지만 '걸렸더라도 나와라'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는게 감기인 것이다.

확실히 젊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중반이후로 접어들면서 회복에도 시간이 걸려 때로는 악화되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감기이다. 그런데도 감기에는 특효약이 없다고 한다. 확실하게 기침이 나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진해제라든가 가래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거담제 같은 약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의 한 증상을 덮어 주는 것으로 감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다. 즉 현대에서 감기에 대해 가능한 의학적인 치료는 인간의 몸이 스스로 나오려는 자연 치유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 감기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충분한 휴양을 기하는 것이다. '아니 뭐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러냐' 하고 할지 모르지만 충분한 휴양을 취해야 약에 의한 의학적인 치료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감기가 들었는데 회사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본래 휴양을 취해야 할 시간을 일에 할당할 것이 된다.

따라서 아무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 이외에는 전부 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침입해 온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된다. 또 이 바이러스도 종류에 따라서 몸의 어느 부분으로 들어올지 모른다. 가슴으로 들어오면 폐렴이 되고 간장에 들어오면 급성 간염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위나 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감기 예방뿐 아니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회사를 쉴 수 없을 때는 아침에 '야채죽'을 먹으면 좋다. 닭의 가슴살·계란·야채 같은 것을 많이 넣으면 영양면에서도 만점이다. 게다가 식초를 조금 넣으면 식욕이 늘어난다. 식욕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거르면 그만큼 체력을 소모하게 되며, 이것이 감기에 제일 나쁘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냉수 샤워를 해보면 좋다. 자율 신경의 역할이 이상해지면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자율 신경의 실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자율 신경에 단련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방법을 예로 들면, 목욕을 할 때 탕수에 들어가는 입욕과 냉수에 샤워를 하는 것을 교대로 되풀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2~3회 하면 자율신경이 자극되어 단련이 되는 것이다.

사석공의 규격 측정방법은 음향측심기에 의한 방법과 레벨(level)이나 레드(lead)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음향측심기에 의한 방법은 단면형상을 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온한 조건하에서는 양호한 정밀도를 기대할 수 있으나 통상은 수고르기 이후의 확인에 사용된다. 또 비탈면을 측정할 경우는 비탈끝에서 법선에 직각으로 측정한다. 레벨에 의한 방법은 기설구조물이나 측량대에 레벨을 설치하고 잠수부에 의하여 수중합착을 이용하여 높이를 정하는 방법이다. 기초고르기면의 측정에 사용되는 레벨에 의한 방법은 음향측심기에 비하여 연속성은 없으나 측정치의 정밀도는 높다.

레드(lead)에 의한 방법은 선상에서 중추(레드)를 인력으로 해저에 내려 수면으로 부터의 깊이를 로프의 눈금으로 관측하는 방법으로 시공중의 높이 확인시에 많이 이용되나 레드가 돌사이에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어 정밀도는 그다지 좋지 않다.

사석수량의 확인은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검수의 방법에는 중량법, 체적법, 규격에 의한 방법이 있다. 청부공사에 있어서는 거의가 규격 검수법이다. 시공중의 수량관리에 있어서는 공정관리가 용이한 체적법이 편리하다.

3.5 피복 및 밀다짐공  
3.5.1 개 설  
피복공은 방파제와 계선안 등의 기초석 표면을 큰돌 혹은 콘크리트블록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6]

## 第3章 基礎工

으로 피복하여 파력으로 인한 기초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방파제나 계선안 등의 기초석은 대체로 50~500kg/개 정도의 돌로 축조되어 있고, 수심에 따라서는 유의파고(H 1/3) 2~3m의 파랑으로도 이동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이들 석체의 이동·유실 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파랑에 저항하고 제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중량이 있는 것으로서 풍화나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피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외해로 면하는 방파제의 기초를 이형블록 등으로 피복하는 예가 늘고 있다. 이것은 파랑이 큰 장소에서의 방파제 피복석으로서 2t/개 정도의 것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복효과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 피복석보다 더욱 중량이 큰 이형블록 등으로 피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계선안에서 파랑이나 해류 혹은 선박의 스크류에 의해서 생기는 흐름에 의하여 세굴되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석의 표면을 적당한 크기의 돌 등으로 피복할 필요가 있다. 밀다짐공은 피복공 또는 기초공의 전면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파랑에 의한 전면의 세굴을 방지하여 이것을 방호하는 것이다.

피복공의 재료에는 피복석의 밀다짐블록(밀다짐방파블록) 및 피복블록(이형블록) 등이 있다. 밀다짐블록 및 피복블록에 대하여는 후술한다(제7장 콘크리트 블록공 참조).

3.5.2 표준적인 시공순서  
피복석의 시공순서는 사석과 같다(3.4 사석공 참조).

3.5.3 시공방법  
피복공은 방파제의 안정상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검토한다. 일손을 줄이기 위하여 기초사석의 시공후 가급적 빨리 완성단계에 인접하여 피복공의 시공공정을 설정한다. 피복석은 2층이상 쌓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복석의 투입은 기초사석의 고르기를 완료한후 거트선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준비공, (2) 해상운반, (3) 위치표시, (4) 투입지시는 사석공과 같다(3, 4 사석공 참조).  
(5) 투입  
피복석의 투입은 고르기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면부근에서 피복석을 투입하지 않고 잠수부의 지시에 따라 기초사석 부근까지 가지고 가서 투입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피복석의 투입상황을 그림 3.5.1에 도시한다.

그림 3.5.1 피복석의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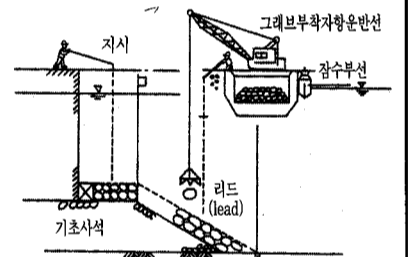


그림 3.5.1 피복석의 투입

### 지식 창조 천년화

### 새천년/천년화 사업

기계기술에서 지식기술로!  
우리가 가진 문화와 지식의 새로운 창조

## 시간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치의 대전환을

생활정보

기본방향  
· 5천년 역사속의 지식을 가진 한민족이 새로운 즈른해를 맞아 우리가 가진 지식의 재창조를 통해 지식선진국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전개

· 새문화화를 창조해 가는 민족의 지식, 상상력과 새기술을 개발 촉진시키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물을 설명하는 지식에서 사물의 의미를 창출하는 지식으로 바뀌는 사업 추진

· 20C 물질문명의 시대에서 21C 지식자산의 재생산과 창조 패러다임 변환

· 학문, 예술의 지적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 한민족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길러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밀레니엄 지원법 제정

세부사업  
· 지식창조의 확산 인프라 육성

- 지식창조 아이디어 보호 기록보존  
- 지식창조형 기업경영  
- 지식창조형 기술개혁  
- 지식창조형 문화예술  
· 전국민족 정보시대의 대비  
- 컴맹퇴치 운동, 정보공유 실천  
· 한글의 세계화 사업

역사 천년화

아름에서 비트로!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와 역사의 기록 보존

개인, 사회, 기업, 국가 등 기록하는 국민 되기

기본방향  
▶ 지식과 정보의 연속성 마련 : 공간의 개념 속에서 단절되는 지식과 정보를 시간의 연속성인 천년화의 축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와 역사의

기록보존  
▶ 살아있는 자료 공유 : 디지털화 작업으로 천년이 지나도 당시처럼 생생한 자료를 공유하여 기록활용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무형기술을 전수하며 부가가치 높은 문화를 산업화하는 것

· 아름답, 물질의 문화재를 사이버 스페이스 등의 비트의 문화재로 바꿔 천년의 후세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여 역사를 단절이 아닌 계승과 지속으로 바뀌는 사업

· 사이버 박물관 : 현재 중앙박물관 등을 디지털 자료화하여, 역사를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의 형태로 재창조한다.

· 중요문헌의 디지털화 : 종이로 된 것은 산성화가 진행되어 소멸되므로 중요한 문헌들을 스캔 또는 디지털로 입력하여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한다

▶ 지식정보 사회의 저변 확대 : 개개인 생활속에서 시작되

는 정보의 활용 및 가치의 창출로 공문서 및 국가기록의 디지털화, 또한 지식정보사회가 가속화, 역사의 생생한 디지털화 작업으로 미래를 발전시키는 단초로 삼음

※ 순수한 우리말로 천년을 무엇이라고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새 천년이나 뉴 밀레니엄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천은 한자에서 온 말이고 밀레니엄은 천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다. 순수한 한국말의 토착어로 천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새천년 맞이 준비하고 있는 새천년 준비위원회는 순수한 우리말로 백은 은, 천은 즈른이고 천년은 즈른해라고 밝혔다. 천년을 가리키는 즈른해란 말은 영원한 사랑을 노래부른 '西京別曲'과 '鄭石歌'의 두

고려가요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 한국인이 한국말의 즈른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천년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뜻이 된다.

이 잃어버린 천년의식을 되찾기 위해서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고어를 다시 찾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새천년", "뉴밀레니엄"이란 말과 함께 "즈른해"라는 말도 널리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천년동이는 '즈른해 아이', '즈른돌이' 등으로

2000년에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은 "즈른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의 밀레니엄 베이비들의 탄생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아있는 우리 미래의 마스코트로 삼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의 하나로 즈른해란 말과 함께 그 가용에 등장하고 있는 '구술'과 '바휘(바위)'란 말을 따서 여자는 '구술', 남자는 '바휘'라는 애칭 혹은 이름을 달아주는 안도 검토 중에 있다.

생활정보